

제2차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실시

9. 18-19 충남 당진일대에서

도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어촌 어항의 각종 체험 거리를 소개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제2차 행사가 지난 18일에서 19일까지 1박2일 동안 충남 당진군 일대 어촌 어항에서 실시되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어항협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서는 인터넷으로 선착순 모집된 도시민 120명이 참가, 당진군 장고항 어촌계,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 함상 테마파크 등지에서 지역 어업인들의 환대를 받으며 다양한 어촌 어항 바다 체험을 즐겼다.



주요 일정을 보면 18일 첫째날 장고항 어촌계에서 갯벌 조개잡이 체험을 했고 저녁에는 도비도 농어촌휴양단지에서

캠핑파이어를 곁들인 조개구이 체험을 했다. 둘째 날은 도비도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난지도 앞바다 등지를 유람했으며 함상 테마파크로 이동, 전투함, 구축함 내부 등을 관람했다.

한편 첫날 도착지인 장고항 어촌계에서는 이수 당진군 농수산과장, 강복만 당진수협조합장, 김기철 석문면장, 장고항 어촌계장 등 어촌 관계자 및 주민들이 나와 환영해 주었으며 조개구이 체험 때에는 대화와 소리 등을 협찬, 참가자 일행을 환대했다.

제17차 해외어촌어항 조사단 파견

10. 21~30 9박 10일간, 일본·유럽 주요 어항 시찰

한국어항협회는 해외 선진국의 어촌 어항에 대한 시책과 정비 및 환경 실태를 직접 살펴봄으로써 어촌 어항 개발을 위한 기술의 발전과 어촌어항에 관한 조사·연구 및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코자 오는 10월 21일부터 10월 30일까지 9박 10일간 제17차 해외어촌어항조사단을 파견한다.

이번 해외어촌어항조사단은 해양수산부

및 시·도, 시·군 어촌어항 관련공무원, 시공사, 용역회사 임직원 19명으로 구성, 일본과 유럽지역 주요 수산관련 어항을 시찰하게 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0월 21일 인천공항 출발 일본 오사카 키사와다(岸和田)어항, 사노(佐野)어항 시찰하고 유럽으로 이동 프랑스 칼레 어항, 벨기에 브뤼헤 어항, 네덜란드 슈베니겐 어항을 시찰할 예정이다.

해양환경평가제 도입 추진

어항 및 항만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전담 평가하는 해양환경영향평가제가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제정안(현행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을 개명)을 마련하고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제정안은 다음달 초 입법예고된 후 11월 중 국회의결을 거쳐 내년 초 공포되고 1년후인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제정안에는 현행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편입된 어항, 항만관련 개발사업에 대해 해양환경부문의 오염가능성을 정밀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해양 환경영향평가제 도입방안이 신설된다.

환경부 산하 환경정책연구원을 대신해 영향평가를 전담할 기관으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연구원, 국립수산물학원 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센터 신설 방안과 이들 기관 중 한 곳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연안역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연안의 붕괴·유실과 난개발 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 이용, 관리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 7일 강릉대학교 대강당에서 '연안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 지자체 관련 공무원, 학계 및 연구소, 언론사, 개발 사업 관계자,

이용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미국 플로리다 주 해변·해안 시스템국 Woodruff 국장이 '미국 해안의 관리정책과 기본방향', 플로리다대 Dean 명예교수가 '미국 연안의 보호와 침식방지 기술소개', 일본 오사카대 데구치 교수가 '일본 연안의 효율적 관리와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각각 초청강연을 한다.